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행정신도시의 중심축권을 누리는 3,813 최대단지!
수완신도시 파오래
분양문의 062)367-3000

제18162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9월 11일 (음력 8월 12일) 목요일

## 새 정부 5+2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 광주·전남 핵심사업 다 빠졌다

### 성장 좌표 불확실

새 정부가 선정한 '5+2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에 광주시와 전남도의 핵심사업인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와 F1대회 개최, 첨단의료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이 반영되지 않아 광주·전남지역의 미래 성장 좌표가 불확실해졌다.

〈관련기사 3·4면〉

특히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에는 전남의 J프로젝트와 충돌을 빚고 있는 전북 새만금 개발사업이 포함됨으로써, 전남보다는 전북에 방점을 찍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지역민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5+2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의 핵심동력인 권역별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 보고했다.

광주시·전남도, 전북도가 포함된 호남권에는 ▲새만금개발(새만금 개발, 신항 건설, 군산공항 확장) ▲여수 EXPO(박람회장, 주변 기반시설) ▲서남해안 연륙교(압해~암태, 화양~적금) ▲호남고속철도 ▲광주외곽순환도로 구축 등 5개 사업이 선정됐다.

광주시는 당초 ▲신재생 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첨단의료 융·복합단지 조성 ▲광주 R&D 특구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원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등 5개 사업을 선도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단 한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첨단 과학·산업 도시 조성'이라는 장기비전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그나마 채택된 광주 외곽순환도로 구축사업의 경우 광주와 전남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이 강해 광주시에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미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남도에서 선도사업 반영을 요청한 7개 사업 역시 '서남해안 연륙교 건설'만 반영됐을 뿐 J프로젝트와 F1 경주대회, 서남권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등 굵직한 현안사업들은 모두 제외됐다.

전남도는 호남권 선도사업에 포함된 사업들 중 4개가 전남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기존에 진행 중인 국책사업이거나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서 새로운 것이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새만금 신항 건설과 군산공항 확장(국제공항 건설) 등을 골자로 한 전북의 새만금 조기 개발사업이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되면서, 전남의 핵심 인프라인 광양항과 무안국제공항의 위축은 물론 J프로젝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사랑의 떡메치기** 한가위를 앞두고 10일 KT전남본부 '사랑의 봉사단' 단원 30여명은 광주시 남구 행암동 전남성노원을 찾아 송편 빚기, 주변 청소 등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가한 송기유 본부장이 떡메를 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같은 광주 하늘 아래 … 올 여름 날씨 두가지 의문

유달리 덥고 기습 호우가 잦았던 여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같은 광주시내라고 해서 강수량이나 기온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이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7일까지 광주시내에 내린 강수량을 측정한 결과 각 구(區)별로 많게는 무려 170㎜가 넘는 편차를 보였다. 평균 낮 최고기온도 구별로 0.6도 가량 차이를 보였다. 사는 곳은 같은 데 왜 지역별로 강수량, 온도 차이가 나는 것일까.

◇광산구·동구 강수량 무려 170㎜ 차= 지난달 8일 오후 7시 15분부터 2시간 동안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내린 비는 98㎜로 이중 86.5㎜가 1시간동안 집중됐다. 반면 같은 날 광산구 용곡동에 내린 비는 단 14.5㎜에 그쳤다.

두달여간의 강수량을 비교하면 차이는 확연히 벌어진다. 광산구 용곡동은 214㎜에 그친 데 반해, 동구 서석동은 385.5㎜가 내려 무려 171.5㎜의 차이를 보였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다. 동구(서석동 조선대)·서구(풍암동 월드컵경기장)·북구(운암동)·광산구(용곡동·하남공단) 별로 설치된 광주지방기상청의 AWS(자동기상관측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 내린 강수량은 동구 385.5㎜, 서구 329.5㎜, 북구 313.7㎜, 광산구 하남공단 263.5㎜·용곡동 214㎜로 나타났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올 여름 광주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자주 들어서면서 성질이 다른 공기들이 부딪혀 국지성 소나기가 많이 내렸다"며 "이중 작은 비구름대가 동·서·북구에 몰리면서 소나기가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주변, 산없는 곳 더 더워 =산이 없는 평평한 지형일수록 덥고 공단지역도 기온이 높은 곳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 광주지역 각 구별 낮 최고 평균기온은 서구 31.59도, 광산구 하남공단 31.37도·용곡동 31.3도, 북구 30.96도, 동구 30.95도로 나타났다.

지난 8일 낮 최고기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서구 풍암동 월드컵경기장(32.3도). 이어 광산구 하남공단(32.1도)·용곡동(31.5도), 북구 운암동(31.4도), 동구 서석동 조선대(31.3도) 순으로 나타나 올 여름 낮 최고 평균기온의 수치와 비슷했다.

〈2면으로 계속〉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 올 여름 광주지역 각 구별 강수량 및 낮 최고 평균기온

Q : 평균 강수량 동구가 광산보다 170㎜ 많은 이유?

A : 작은 비구름대 몰려 국지성 호우 잦아

Q : 낮 최고기온은 왜 서구가 동구보다 1도 높을까?

A : 평평한 지형에 바람길 막혀 '온실효과'

# "김정일 수술 후 호전"

## 국정원, 국가 통제력 잃지 않아

국가정보원은 10일 국회 정보위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8월14일 이후 순환기 계통에 이상이 생겨 수술을 받았고 현재 호전된 상태라고 보고했다. 〈관련기사 6면〉

국정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 위원장은 집중 치료를 받아 현재는 많이 호전됐다는 첩보가 있다"고 덧붙였다고 정보위 한나라당 측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

김성호 국정원장은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병명에 대해 "뇌졸중 또는 뇌일혈로 보이나 하나로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위원장은 외국 의료진에 의해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특히 김 위원장의 현재 몸 상태에 대해 "언어에는 전혀 장애가 없으며,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지난 8월14일 이후 공개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해 "동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 참석 의원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국가통제력을 잃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우암학원 창립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 30大 선도 프로젝트 5년 간 50조 투입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철도망 확충, 새만금 개발 등 30대 국책 선도프로젝트에 5년간 50조원이 투입된다. 또 광역경제권 별로 1~2개씩의 선도산업이 지정돼 육성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선도산업 및 인력양성, 광역기반시설 확충 등을 담은 30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향후 5년간 5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권역별로 보면 호남권에 새만금개발, 여수엑스포 시설, 호남고속철도, 광주외곽순환도로 등 5건, 동남권에 경전선 복선전철(부산-마산-진주-광양), 동북아제2허브 공항, 부산외곽순환도로 등 5건이 각각 선도프로젝트로 뽑혔다.

수도권에는 제2외곽순환도로(인천-파주-양평-오산-인천), 원시-소사-대곡 복선전철, 인천지하철 2호선 등 3건, 충청권에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전-행정도시-오송 신교통수단, 제2경부 및 제2서해안 물류 고속도로 등 5건이 선정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